



바지랑대

2019 Vol. 55

발행인 김정우 기획 및 편집 바지랑대 편집위원회





전화를 반갑게 받는 분이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소중한 행복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에 재가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민우라고 합니다.

처음 복지관으로 출근하는 길이 어찌나 떨리고 설레던지 아직도 그 떨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시고, 처음 보는 저에 대한 궁금증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던 복지관 이용 장애인분들을 보며 저에 대한 관심과 환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진해 지역 내 혼자 거주하시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 처음에는 진해 지역을 몰라 김치, 명절 선물 등을 배달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흘러 지금은 웬만한 진해 지역은 다 알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재가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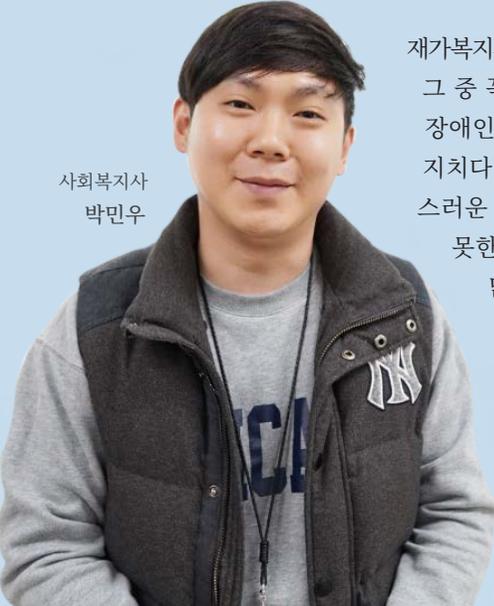
재가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환대해주시는 분, ‘너는 누구니?’ 라는 눈빛을 보내며 경계하시는 분,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 등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인연을 맺어 갔습니다. 그 인연이 이제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저를 경계하시던 장애인분들도 지금은 웃으며 편하게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꼭 한 가지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가 장애인분들을 자주 찾아뵙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끔 업무가 바쁘고, 지치다 보면 잘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가장애인분들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자주 겪다 보니 조금만 더 찾아뵙고, 연락드릴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게 되어 지금은 재가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전화해보시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이 먼저 나를 찾아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 전화를 반갑게 받는 분이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소중한 행복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일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회복지사
박민우



CONTENTS

02
직원글

03
컨텐츠 / 호박문학 시

04
상추와 마늘 이야기
"이제는 나도 나누고 싶어요!"

05
햇빛촌 이야기
찾아가는 교육 · 밀양연극제수상

06
자전거세차장 부스설치

07
함께해요, 술런!

08
동근세상만들기 그림그리기대회

09
벗(友)꽃ANDING

10
공동모금회 부모교육

11
주간보호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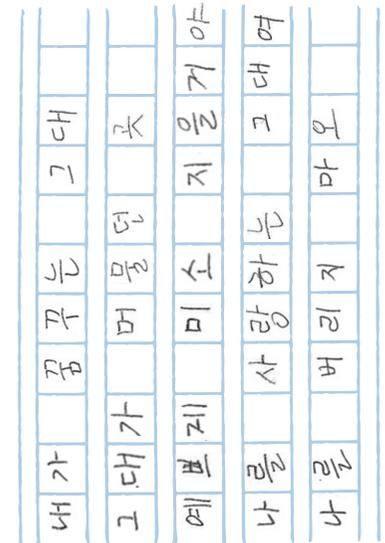
12-13
진해이바구
복지관 인싸이야기
함께가게·직원동향

14-15
사진으로 보는 복지관 2분기 이모저모

16-17
3분기 안내

18
봉사자 현황

19
후원자 현황



내가 꿈꾸는 그대

김창수
문학교실 2기 학생



이제는 나도 나누고 싶어요!

받아왔던 그 마음을, 이제는 저도 나누고 싶어요.



계절 김치를 직접 만들어 나누어 주는 사계절 김치!!



김치를 후원받고 있는 재가대상자 최○실씨가 복지관으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계절 김치의 재료로 사용해 달라며 밭에서 키운 마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재가대상자 강○찬씨도 복지관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직접 키운 상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알알이 마음 가득한 사계절 김치와 상추쌈은 평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나누어 주신 그 마음 덕분에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뒤편아,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장애인 연극단 햇빛촌, <맨발의 기봉이>영화를 연극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 <뛰어라 뒤편>과 함께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맘 흘리며 <뛰어라 뒤편> 작품으로 지역축제, 연극제, 학교(교육청 연계사업), 사랑 나눔 공연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21회 공연을 올렸습니다.



제 13회 밀양아리랑연극제 수상을 축하합니다!

유철 감독 지도자상

햇빛촌 단체 은상

임춘섭 단원 연기 금상

조수훈 단원 연기 은상

햇빛촌은 2019년 5월 7일, 제13회 밀양아리랑연극제에 참여하여 <뛰어라 뒤편> 작품으로 4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체 7개 팀과 함께 겨루었으며, 장애인 연극단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여 수상의 의미가 큼니다. 장애인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감동으로 가치를 더했고, 부단한 연습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햇빛촌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빛촌은 2019년 김해교육지원청 연계사업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공연으로, 6개의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연극 공연이 끝나면, 연극단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과 “장애인에 대한 작은 변화”를 함께 나눕니다.

“일단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들이 연극 공연을 이끌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해 ‘동정’이라는 단어보다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진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11월 29일 19시,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새 작품 ‘사랑나눔공연 <철수영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더위, 이제 걱정 없어요!!!

“우와와와와와!!!!”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여름에는 더위와, 한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한 진해장애인복지관의 작은 마음이 도착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천막 하나에 의지했던 근로자들에게 극한 더위와 극한 추위를 강력하게 막아줄, 우리 근로자들의 열정과 똑 닮은 빨간 자전거 세차장 부스가 생겼습니다.

전국 최초!! ‘공영자전거 세차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한 진해장애인복지관, 행복하게 일을 하며 꿈을 키워갈 근로자들을 응원합니다!



서○민 빨간색이 멋있어서 정말 좋아요!!!

서○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세차부스 안에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해서 좋아요.

류○규 자전거 닦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백○규 빨간색이라서 세차장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스팀을 뿌려도 덥지 않아요.

누구나 즐기기 좋은 놀이! ‘솔런’ 함께 해요!

‘솔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런게임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어 동등한 경기방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고 날씨에 관계없이 실내스포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솔런 게임을 농아인협회진해지부에서 복지관을 매주 수요일마다 방문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보드가 구비되어 있어 대회를 앞두고 보다 원활하게 경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며 협회에서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이현옥 지회장님께서서는 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전문가라서 그런지 회원님들 역시 경기 내내 프로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농아인협회진해지부가 함께 함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Q. 솔런이 뭔가요?

A. 나무로 된 보드 위에서 납작한 솔런 퍽 (납작한 토막) 30개를 구멍 사이로 넣는 네덜란드의 전통게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제 16회 장애복지박람회 및 동진해라이온스클럽과 함께 하는 동근세상 만들기 **편견 없는 세상을 그려요!**



봄내음이 가득한 지난 4월 27일, 복지관 앞마당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니가 있어 참 좋다.’ 라는 주제의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500명의 어린이들이 ‘편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저마다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예쁜 눈을 그려준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소풍을 가는 그림을 그린 아이, 아이들의 그림 속 세상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편견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일방적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서로를 믿고 함께 의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한 ‘등수’로 ‘차별’을 두는 ‘심사’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동근세상賞(상)’을 수상하는, 모두가 함께 함에 의미가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지역단체 12곳이 연대하여 총 1,500명의 지역주민들이 장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벗(友)꽃ANDING **그래서, 경화동이 참 좋다!**



♥♥♥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아름다운 경화역에서 내 이웃을 만납니다.
경화동에 살고 있는 ‘너’와 ‘나’
함께 ‘연대’하여 이야기를 채워나갑니다.
함께 무대를 만들고 즐깁니다.
함께 체험을 하며 이해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편견 없는 이웃이 됩니다.
♥♥♥

2019 상반기 벗(友)꽃ANDING 행사가 1,000여명의 지역주민 참여 속에 6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많은 지역주민들 속에 장애인들이 나누는 체험과 공연이 곳곳에 녹아든 벗(友)꽃ANDING의 경화역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이웃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천연비누 만들기, 뽕튀기, 컬러북 만들기, 붓글씨 쓰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화동에 살고 있는 농아인협회 진해지부 회원 모두가 함께 한 무대에서 수어합창공연 무대를 펼쳐 감동의 울림을 전했으며 한화어어로스페이스와 진해월드봉사단의 나눔으로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장애 없는 진해 경화동을 만드는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며 다가오는 11월 2일 벚꽃앤딩 행사에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신이어서 행복합니다

선배부모와 후배부모가 만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을 나눕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고민이 많았던 내게 '언니'가 생겨 든든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세 미만의 영유아발달장애 자녀를 둔 다섯 가족을 대상으로 주양육자 상담, 부부상담, 워크샵,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부모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부모 다섯명이 함께 모여 선배부모보수교육, 멘토-멘티간 친해지기 사전교육 '언니야' 프로그램, 편안하게 모여 함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분기에 실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 선배부모보수교육 | 2/15 · 3/15
- 언니야 프로그램 | 3/19 · 4/26
- 간담회 | 6/13 · 6/26



함께하는 통합사회적응 프로그램 이야기

'우리'에서 벗어나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조금 색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함께 함'을 위해,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서 벗어나 더 큰 '우리'를 만납니다.



1. 5월 농장체험: 강릉 열차 타기 3. 소떡소떡과 계란토스트
2. 6월 부산 119 안전체험관 체험 4. 4월 요리대회 참여

지역사회와 유관기관(마산장애인복지관, 창녕군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대하여 '통합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짐볼 굴리기,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 카드 뒤집기 게임 등 다른 이용자와 만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체험합니다.

서툰 솜씨이긴 하지만 더딘 손으로 조물조물 직접 만든 요리로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솜씨를 뽐내어 봅니다.

시장에서만 봐왔던 딸기를 직접 따보고 신선함을 입에 넣어 봅니다. 강릉 열차를 타고,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생활안전, 도시안전, 재난 안전에 대한 체험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부산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합니다.

다른 기관의 이용자와 만나 '관계' 한다는 것이, 낯선 지역사회에 가서 '경험'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해서 복지관 선생님 곁에서 머무르며 주저하던 이용자들이, 회기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친구가 된 그들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갑니다.



진해이바구



함께가게 이야기

2019년 상반기 함께가게 운영위원회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요.”

지난 4월 30일 화요일 2층 방과후교실에서 2019년 제 1차 함께가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문인선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2019년 함께가게 현황보고와 함께 ‘함께가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논의해서 선정한 ‘나에게로 초대’와 이동복지관 ‘진해에 반해소’ 사업에 각 3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함께가게 홍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가게가 더욱 활성화가 될지 운영위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신입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대박광고 박성욱 대표는 ‘함께가게가 62호점인 것이 아쉽다며, 나부터 함께가게를 지역에 더욱 많이 홍보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다음날 2호점의 신규 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는 적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참 감사한 함께가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역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함께가게’가 되었습니다!

함께가게 문의 ☎055-540-0423

직원이야기



육아휴직을 끝내고 장애인 재활대출센터로 무사 복귀하신 김미선센터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경상남도장애인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에서 여영국 국회의원을 수상하신 상담 문화지원팀 허은영 선임대리님 축하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들이 뭉쳤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진해장복 여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꽃을 만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work와 life의 아름다운 balance를 위하여, 여직원들 파이팅!!



복지관 인싸(insider) 이야기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

매주 목요일이면 복지관 곳곳에 ‘평화’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 복지관 인싸 이야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호흡을 맞추며 ‘평화’를 노래하는 ‘Dona_Nobis 파챌’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 열정적인 카리스마 이영령 단장님과 감성부자 윤일지 부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파챌합창단 단장 이영령입니다.

30년간 피아노와 함께 동고동락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 프리랜서 윤일지입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파챌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비장애인들로 구성된 파챌합창단에서 음악 기획 및 피아노를 맡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광석골 음악회를 계기로 시작하였는데 복지관 국장님께서 권유해주셨습니다.

지금 파챌합창단 지휘자님과 음악적 인연이 복지관 국장님의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합창단에 대한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열정이 많다보니 종종 체력소진이 생기곤 합니다.^^

저희는 악보라는 큰 수단의 활용에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보는 단지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악보에 맞추는 합창음악이 아닌 지휘와 피아노가 단원들에 맞추는 편곡이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점이 조금 힘듭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연습과정 전부가 항상 감동입니다.

합창시간 중 단원분들 한 명 한 명이 보여주는 개성과 매력에 매번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여느합창단과 같이 한 소리를 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 합창단을 더 색다르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내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부분일까요?

파챌을 통하여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give&take 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give는 give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단원들로부터 take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파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벅합니다^^ 음악적 아이디어로 머리가 한가할 날이 없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000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평화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나의 영혼 치유소이다. (너무 갔나요?^^)

봉사활동을 하며 복지관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처음엔 합창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정을 잘 알아주시고 관장님·국장님·팀장님의 도움으로 합창단이 많이 성장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꾸준한 지원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모두 화이팅!!!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 주는 것(물질이든 재능이든)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나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분위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감동적인 음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하나 하나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감동이 전해 올 때 ‘아, 내가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북받쳐 옵니다.

사진으로 보는 복지관 2분기 이모저모

1 장애아동 연극반에서는 지난 6월 15일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라이브뮤지컬 '리틀캣'을 관람하였습니다.



2 2019 '부모양육지원 프로젝트-엄마수업' 6.20(목) 10시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양육코칭·심리정서지원·힐링플라워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3 장애인자립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볼라레 이용자들이 월 1회 요리교실에 참여합니다. 5월 24일 첫 수업으로 '브리또'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4 6.17 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으로 직업지원팀(취업지원반·직업적응반)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 여성장애인 기능습득사업의 일환으로 캔들·수제비누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화요일 주 2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 지난 5월 20일 취업지원반에서는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가야테마파크에서 김해역사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12 바지랑대 표지모델 오디션을 통하여 이주영·박성호·박세환·백인규 총 4명의 모델이 선정되었습니다~! 촬영 뒷이야기는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11 매주 화요일 시각장애인 합창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합니다!



10 진해 용원에 있는 애플라트 치과의 나눔으로 장애인세대 치과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9 사계절김치나누기는 바르게살기 창원시 진해구협의회 나눔으로 여름맛이 '열무 물김치'를 95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8 5월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창원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복지관 홍보와 동시에 장애 체험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7 흥국유치원·진해유치원·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과 체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 3분기 안내



나눔의 날

- 일 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20~12:30
- 장 소 복지관 식당
- 대 상 이용자 및 지역장애인
- 문 의 055)540-0434



바리스타 실무훈련

- 일 시 **7/22~7/26**
- 10:00~12:00
- 14:00~16:00
- 일 시 **8/5~8/9**
- 10:00~12:00
- 14:00~16:00
- 대 상 바리스타 자격취득한 장애청소년 12명
- 문 의 055)540-0450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 일 시 7·8월 중 진행예정
- 장 소 본 복지관 중회의실
- 대 상 샤프론 자원봉사자
- 문 의 055)540-0434



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모임 '우리다' 신규 팀 모집

- 모집인원 4명~10명 그룹
- 활동기간 2019.7.1.~2019.10.31.
- 장 소 자율주제에 따른 장소
- 대 상 장애자녀를 둔 부모
- 혜 택 선정 시 연간 30만원 예산 지원
- 문 의 055)540-0431



4계절김치나누기 — 가을 무김치

- 일 시 9월 중 진행예정
- 장 소 진해장애인복지관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055)540-0460



추석명절마음나누기

- 일 시 9월 중 진행예정
- 장 소 재가장애인 가정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055)540-0460



장애청소년 자립훈련 체험

- 일 시 7/30~7/31 16:00~09:00
- 장 소 그룹홈
- 대 상 여성 장애청소년
- 문 의 055)540-0494



취업지원반 장애청소년 현장중심훈련 전환기프로그램

- 일 시 7/1~8/9 08:45~16:30
- 장 소 취업지원반·꿈자리업체
- 대 상 장애청소년 6명
- 문 의 055)540-0453



대그룹 특수체육

- 일 시 매주 화요일 15:30~16:20
- 장 소 복지관 강당
- 대 상 장애아동
- 문 의 055)540-0490



장애인 외식지원사업 “나에게로 초대”

- 일 시 9월~11월
- 장 소 당사자가 원하는 식당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055)540-0460



너른마당 프리마켓

- 일 시 8/24·9/28
- 장 소 복지관 마당
- 대 상 지역주민
- 문 의 055)540-0470



이용자 생활금융교육

- 일 시 9/27(금) 14:00~16:00
- 장 소 중회의실
- 대 상 직업적응훈련생·장애인일자리
- 문 의 055)540-0453



광석골 호수 음악회

- 일 시 10/2(수) 오후
- 장 소 복지관 호수
- 대 상 지역주민
- 문 의 055)540-0400

바지랑대는 축 늘어지는 빨랫줄을 다시 돌우어 올리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바지랑대가 되고자 합니다.

주소 5162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번지(풍호동 1번지)
전화 055) 540-0400 팩스 055) 541-0400
홈페이지 www.jcr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crc001

세상으로 가는 작은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진해장애인복지관
Jinhae Community Centre for the Differently Abled

